

간호대학생의 욕구구조에 관한 일연구

최 계 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지도: 홍 신 영 교수>

==차 례==

I. 서 론

- A. 연구의 취지 및 동기.
- B. 연구의 목적
- C. 연구의 범위
- D. 도구 해설

II. 문헌 조사

III. 가 설

IV. 연구방법 및 절차

- A. 도 구
- B. 대상 및 검사방법
- C. 분석 방법

V. 결과 및 해석

- A. 일반적인 조사결과
- B. 가설에 따른 결과 및 해석

VI. 결론 및 제언

- 참 고 문 헌
- 영 문 초 록

I. 서 론

A. 연구의 취지 및 동기

대학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전공학습에 대한 성취도와 적응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전문교육 분야에 큰 관심거리가 되어오고 있다. 특히 과학이나 기술교육 분야에서의 우수아들의 지진(Under achievement) 문제는 이미 여러 심리학자나 전문교육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왔으나 그 근본원인이 되는 비지적 요인을 색출해 내는데 뚜렷한 결과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결과를 기초로해서 학생의 학업성적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학업성적을 예측하려 할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다.

간호교육에 있어서도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지진 및 부적응 문제가 커다란 난점으로 대두되어왔고 몇몇 전문 교육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나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더욱이 간호대학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업도중 흥미를 잃고 전과를 희망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1,2}은 현대 대학 간호교육이 당면하고있는 큰 문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은 1957년 10월, 사상최초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가 궤도에 올려진 후로부터 최근 10여년동안으로, 다방면의 연구결과, 학업성적의 과진(Over achievement)과 지진의 원인을 인간의 동기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준해 주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생각해 볼때 우선 문제가 될 수 있는것은, 간호학 학습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적성은 어떠한 것이며 간호학 학습이 성격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문제와 특수학습 환경인 임상 학습에 효과를 주는 동기가 무엇이며 각 임상과목별로 어떤 특징적인 동기가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인의 동기를 가장 일관성있게 측정 할수있는 「심리적 욕구 진단검사」³를 간호대학생에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여러 방향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가지 목적을 이루어 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비지적 인성변인을 구명해 봄과 동시에 학

1) 하영수: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1)," 대한간호, 제 8권 6호, 1969, p. 39.

2) 이은옥, 우옥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의 입학전 제특성 및 태도와 입학후 갖게되는 전문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관계", 대한간호, 제10권 1호, 1971, p. 29.

3) 박영수: "과전아와 지진아의 욕구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65).

생물 이해하고 예측하는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므로서 효과적인 대학 간호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C.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대상 범위 이외를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D. 도구 해설

심리적 욕구진단 검사란 인간의 성격을 각 개인이 갖는 욕구와 개인에게 주는 환경의 양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하려고한 Murray의 성격이론에 따른 욕구개념에 대하여 Edwards에 의해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15개의 욕구변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E.P.P.S.)⁴⁾를 한국판으로 번안·수정한 것으로 이 검사의 특징과 이론적 근거 및 그것이 측정하고있는 욕구변인은 다음과 같다⁵⁾.

1. 특징 및 이론적 근거

이 검사는 E.P.P.S에 나온 현시적인 진술문들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 value)가 같은것끼리 짝을 지워 자신의 욕구를 보다 잘 나타내어 주는것을 상에 선택하도록 작성하였으므로 그 진술문이 나타내는 바람직성에 따라 반응하려는 심리적 반응기제를 어느정도 제거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또한 반응의 항구성 검사(consistency check)를 할수 있게끔 검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본 검사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하나의 욕구는 절대량으로서의 욕구가 아니라 여러가지 욕구와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강한 욕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점에서 다른 검사와 그 이론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다.

2. 측정하고 있는 욕구

측정되는 욕구변인의 명칭과 개념을 간단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need Achievement (n. Ach.)

모든 일에 성취하고자 노력하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2) need Deference (n. Def.)

다른 사람의 지도에 잘 따르고 의견을 잘 받아드리 는 욕구

(3) need Order (n. Ord.)

무슨일을 하기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에 정돈을 잘하려는 욕구

(4) need Exhibition (n. Exh.)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으로 주위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며, 자기의 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

(5) need Autonomy (n. Aut.)

다른 사람이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고, 책임이나 의무는 피하고 싶어하는 욕구

(6) need Affiliation (n. Aff.)

강한 애착을 가지고 많은 친구와 사귀며 신의를 지키며 화목하게 지내고자하는 욕구

(7) need Intraception (n. Int.)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행동, 감정, 동기, 성격을 분석하기 좋아하는 욕구

(8) need Succorance (n. Suc.)

다른사람으로 부터 위로나 친절을 받기 원하는 욕구

(9) need Dominance (n. Dom.)

어떤 집단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며 자기의견을 주장하여, 다른사람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욕구

(10) need Abasement (n. Aba.)

모든일에 열등의식을 느끼며, 일의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느끼는 욕구

(11) need Nurturance (n. Nur.)

불행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다른사람의 잘못도 관대하게 용서해 주려는 욕구

(12) need Change (n. Chg.)

한가지일에 꾸준하기 보다는 수시로 새로운 일을 하고자하는 욕구

(13) need Endurance (n. End.)

어떤일을 끈기있게 계속해서 끝내려는 욕구

(14) need Heterosexuality (n. Het.)

이성과 사귀기 원하며, 성에 관해 흥미를 느끼는 욕구

(15) need Aggression (n. Agg.)

이견에 대해 반격하며, 공공연히 비평하고자하는 욕구

II. 문헌 조사

학업성적과 비지적(非知的) 변인사이에 상관관계가

4) H. Murray,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38.

5) A.L. Edwards, *Manual for the 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New York: Psy. Co., 1959.

6) 박명수: 전제서, p. 20.

있다는 가설을 뒷바침 해주는 것으로서, 파·지진 여자 대학생들 비지적 변인에 비추어 비교해본 Lum의 연구⁷⁾나, 비 지적 변인과 대학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Holland의 연구⁸⁾에서 학업성적에 성격변인이 관계됨을 보여주었고, 또한 지적요인과 성격변인, 학습 습관을 중심으로 학업성적에 상관을 지어본 김의 연구⁹⁾에서도 성격변인에 상관이 있다는것을 시준해주고 있으며 특히 간호학을 비롯한 전문 직업 분야에서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가 비 지적 변인, 즉 성격변인으로서 파·지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실제의 학업 성적을 성격변인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 보려는 문제 역시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개인의 성격변인을 측정함에 있어 어떤 일관성있는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모순 점을 가져왔던 것이나, 미국에서 Murray¹⁰⁾의 욕구개념에 따라 15개의 욕구변인을 가지고 강제 선택형으로 마련된 E.P.P.S.¹¹⁾가 욕구변인의 점수를 하나의 절대적인 양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욕구변인과의 상호작용으로서 이해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그와 같은 난점을 어느정도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활용한 결과로서 Heilbrun의 연구¹²⁾에 의하면, 파진 남학생은 n. Achievement와 n. Endurance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 n. Change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진 남학생은 n. Nurturance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파진 여학생은 n. Nurturance에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지진 여학생은 n. Exhibition과 n. Autonomy, n. Aggression에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n. Intraception과 n. Abasement, n. Endurance에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학생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Gebhart의 연구¹³⁾에 의하면, 파진 학생은 지진 학생보다 n. Achievement, n. Order, n. Intraception에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n. Nurturance와 n. Change, n. Affiliation에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검사는 특수 전문분야의 학생이나 직업인의 성격구조를 연구하는데 특히 많이 사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으며 간호학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었는데, Smith¹⁴⁾는 간호학생의 성격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성격특성이 학생의 성패에 관계가 있음을 시준해주었고, Madigan¹⁵⁾은 일반적으로 간호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욕구변인은 n. Order, n. Deference, 그리고 n. Endurance임이 여러 연구결과 증명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George와 Stephens의 연구¹⁶⁾에서는 보건 간호원에게 있어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욕구변인은 n. Order, n. Intraception, n. Deference, n. Endurance의 차례이고,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n. Succorance, n. Exhibition n. Nurturance, n. Affiliation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과 간호원과 거의 비슷한 욕구구조를 보여주며 다른분야의 간호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고, Schultz¹⁷⁾는 간호학생의 욕구구조가 2학년에서 4학년을 지나는데 동안 변화된다는 가설을 검증해냈다.

가장 관심을 끌만한 연구로서 Levitt의 2인의 연구¹⁸⁾를 들수 있는데, 임상실습 경험전의 간호 학생들을 일반 여자대학생과 졸업 간호원에게 비교해본 결과,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경험전에 이미 특수한 욕구구조를 갖게되며 n. Autonomy, n. Dominance, n. Agg-

7) K.M. Lum, "A Comparison of Under & Over-achieving Female College Students," *J. of Ed. Psy.*, Vol. 51, No. 3, 1960, pp. 109-113.

8) K.L. Holland, "The Prediction of College Grades from Personality and Aptitude Variables," *J. of Ed. Psy.*, Vol. 51, 1960, pp. 245-251.

9) 김옥환: "학업성적 예측에 관한 일 연구", 교육학연구, 11: 148-173, (서울: 연세대학교, 1962)

10) H. Murray, *Loc. cit.*

11) A.L. Edwards, *Loc. cit.*

12) A.B. Heilbrun, "Configural Interpretation of E.P.P.S. and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 Guidance Journal*, XLII, 1963, pp. 264-268.

13) G.G. Gebhart, "Personality Needs for Under & Over achieving Freshman," *J. of Appl. Psy.*, Vol. 42, 1958, pp. 125-128.

14) J.E. Smith, "Personality Structure in beginning Nursing Students," *Nur. Res.*, Vol. 17 140-145, 1968.

15) M.E. Madigan, *Psychology*, Saint Louis: Mosby Co., 1966, p. 341.

16) J.A. George & M.D. Stephens, "Personality Traits of Public Health Nurses and Psychiatric Nurses," *Nur. Res.*, Vol. 17, pp. 168-170, 1968.

17) E.D. Schultz, "Personality Traits of Nursing Students and Faculty Concepts of Desirable Traits," *Nur. Res.*, 14: 261-268, 1965.

18) E.E. Levitt, B. Lubin & M. Zuckerman, "The Students Nurse, the College Woman and the Graduate Nurse; A Comparative Study," *Nur. Res.*, pp. 80-82, 1962.

ression 같은 남성적 욕구가 약한 반면 n. Succorance, n. Nurturance, n. Abasement 등의 여성적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했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는 성인여성층의 가장 여성적이며 여러해 동안의 숙련(Practice)을 거쳐서 욕구구조가 변화하는데,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간호학 선택의 주 동기였으며, 목표(goal)이었던 인간적(humanity) 욕구가 기계적인 기술습득이나 임상직식, 의료요원 등에게만 국한되어 버리려는 경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가 설

본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조직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I 가설: 간호학 학습활동과 성격변인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각 학년별 욕구구조상에 차이를 보여줄 것이며,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불만족별 욕구구조조상에도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제 II 가설: 임상에서의 학습활동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욕구구조가 있다면, 임상실습 성적의 과·지진별 욕구구조상에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제 III 가설: 임상과목별 학습활동이 다른 욕구구조를 요구한다면 학생들의 흥미과목별 욕구구조상에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A.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는 E.P.P.S.를 박영수¹⁹⁾에 의해 번안, 수정한 「심리적 욕구 진단 검사

이다.

B. 대상 및 검사방법

본 연구는 1971년도 2학기에 등록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1인당 평균 약 8~10분이 소요되므로 각 학년별로 단채로 실시하였다. 즉 1971년 9월 8일에 3학년에게, 9월에 4학년에게, 10월에 2학년과 1학년에게 각각 강의실에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여기서 누락된 학생에게는 2차 3차로 개별적으로 검사지를 나누어 주어서 응하도록 하였다.

C. 분석방법

실시된 검사의 결과를 설정된 가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제 I 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간호학 학습활동과 성격변인 사이의 관계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각 학년별 비교를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학년 과정에서는 일반 교양과목을 이수하게 되므로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을 전혀 얻지 못하고, 2학년 과정에서는 간호학에 관한 기초학문을 배우게 되며 처음으로 임상에 나가 특수 환경에서의 대인관계를 갖게 되고, 3학년에 일반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4학년에 특수 임상과목과 전진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되므로, 이와같은 조건을 결부시켜 각 학년별 욕구구조의 차이를 검증해 봄으로써 간호학 학습활동이 성격변인에 관계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려 하였다. 검사당시의 각 학년별 주요 전공과목의 이수상황과 임상실습 상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검사당시의 각 학년별 학습상황

학년	전공과목 이수 상황	임상실습 상황	실습경험시간 (hr)
1	기초과학 (식물학·동물학·화학·물리)		
2	간호기초학 (생리학·해부학·기초간호학)	기초간호학 (내·외과 병동)	40
3	내·외과간호학 I. 소아과·산부인과·정신과간호학 보건간호학 I.	내·외과간호학	698
4	내외과간호학 II. 보건간호학 II. 미상시 간호학	보건간호학·산부인과간호학 소아과간호학·정신과간호학	1,858

19) 박영수: 전개서

점증방법으로는 각 학년의 욕구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학년간 t-test를 하였다.

다음 단계로 현재 전공과목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학생들과 만족치 못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이것은 “동기는 반응을 예견하고 효과 있는 행동으로 이끌게 해준다”²⁰⁾는 Melton의 이론에 따라 학생 스스로가 만족한 상태이라면 좋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의 욕구구조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간호학 학습에 관계되는 욕구변인을 규명하려 하였다.

만족·불만족구분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문항을 2, 3, 4학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택일하게 하였다. 즉,

- 1) 간호학은 내성격에 맞다고 생각한다.
- 2) 그런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 3) 내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서 문항 1)에 해당하는 학생을 만족구분으로, 문항 3)에 해당하는 학생을 불만족 구분으로 정하였다.

점증방법으로는 각구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test를 하였다.

[제Ⅱ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임상에서의 학습활동에 성격변인이 관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3, 4학년 임상실습 성적의 과·시간구분별 비교를 하였는데, 과지진구분의 결정은 1970년 3월부터 1971년 8월까지 사이에 임상실습 지도자들에 의해 간호학생의 평가기준인 지식, 기술, 태도의 세가지를 기준으로 21개의 항목에 평가되어진 점수를 일률화 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각 실습장소별로 나온 점수를 상·중·하로 분리시켜, 전체를 종합한 성적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구분을 과지진구분(44명, 31.2%), 하에 해당하는 구분을 과지진구분(48명, 33.3%)으로 정했다. 점증방법으로 역시, t-test를 하였다.

[제Ⅲ가설]에 따른 분석방법: 각 임상과목별로 요구되는 욕구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과목에 학습경험이 있는 3, 4학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과목별로 분류하여, 각 구분별 욕구구조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이는 “동기는 그 정도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의 선택적인 작용을 하는 한면, 흥미와 자발성에도 직결된다. 그러므로 학습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행동의 결과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한 인간이 형성

될 것인가의 목적의식이 뚜렷하여, 바로 그 동기로 강하게 끌려 흥미와 자발성 본위로 학습한다”²¹⁾. 고한 Melton의 이론을 근거로해서 흥미를 느끼는 과목에서는 바람직한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 학생으로 하여금 다섯분야의 임상과목, 즉 내·외과간호학, 산부인과 간호학, 소아과 간호학, 정신과 간호학, 보건 간호학 중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택일 하게하여 각 구분별 비교를 하였다. 해석은 평균 점수에 의해서 각 구분별 특징을 알아보았다.

V. 결과 및 해석

A. 일반적인 조사결과

1. 검사의 실시성적

총 대상자수 307명중에 293명이 검사에 응하였으므로 전체성적은 95.4%로 나타났으며, 각학년별 성적을 보면 다음 표-Ⅱ와 같다.

<표-Ⅱ> 검사의 실시성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 체
응 답 수	73 (80)	79 (80)	73 (74)	68 (73)	293 (307)
백 분 율	91.3	98.7	98.7	93.0	95.4

* 괄호안 숫자는 정원수 임.

<표-Ⅲ> 전공 학습에 대한 만족상태(N=220)

문 항	택한수	백분율
간호학은		
내 성격에 맞다고 생각한다	21	0.10
그런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168	0.76
내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31	0.14

<표-Ⅳ> 흥미과목의 선택상황(N=141)

과 목	선 택 수	백분율(%)
내 외 과 간호학	26	0.18
산부인과 간호학	30	0.21
소 아 과 간호학	12	0.09
정 신 과 간호학	52	0.37
보 건 과 간호학	12	0.09

20) A.W. Melton, "Motivation and Learning," *Studies in Motiv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 1955, pp. 424.

21) *Ibid.*

2 대상자의 전공학습에 대한 반응

대상자의 전공학습에 대한 만족상태 및 흥미과목의 선택상황은 표-III과 표-IV와 같다.

B. 가설에 따른 결과 및 해석

제 I 가설: 각호학 학습활동과 성격변인 사이에 관계

가 있다면 각 학년별 욕구구조상에 차이를 보여줄 것이며,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 불만족별 욕구구조상에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심리적 욕구진단 검사가 측정한 간호대학생의 각 욕구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 표-V와 같다.

<표-V>

각 학년별 욕구변인의 비교

	1학년(N=73)			2학년(N=79)			3학년(N=73)			4학년(N=68)			전 체	
	Mn	SD	t	Mn	SD	t	Mn	SD	t	Mn	SD	t	Mn	SD
Ach.	15.03	3.99	.23	14.89	3.53	-.88	15.44	4.14	-.23	15.60	4.18		15.24	3.95
Def.	13.40	3.69	-.54	13.73	3.83	1.57**	12.77	3.71	-1.00	13.38	3.49		13.32	3.69
Ord.	13.39	4.61	-2.06*	14.81	3.94	.91	14.23	3.89	.31	14.00	4.89		14.11	4.34
Exh.	14.38	3.84	2.45*	12.85	3.84	.98	12.25	3.68	-2.33*	13.79	4.18		13.32	3.95
Aut.	14.48	4.18	-.56	14.87	4.32	-1.79**	16.04	3.68	1.75**	14.88	4.18		15.07	4.12
Aff.	14.70	3.90	-.91	15.28	3.97	.52	14.96	3.62	-.17	15.07	4.23		15.00	3.92
Int.	19.52	3.48	-.38	19.75	4.02	2.28*	18.29	3.87	-.69	18.75	4.08		19.08	3.90
Suc.	15.37	4.72	2.04*	13.78	4.88	.30	13.55	4.57	-.18	13.69	4.48		14.10	4.71
Dom.	15.14	4.49	.20	15.00	4.28	-.29	15.21	4.55	-1.02	15.99	4.49		15.33	4.44
Aba.	16.77	4.37	-.92	17.44	4.57	1.33**	16.47	4.41	.25	16.28	4.55		16.74	4.48
Nur.	18.33	4.46	-1.99*	19.70	4.04	.64	19.26	4.38	1.21**	18.41	3.93		18.92	4.23
Chg.	18.66	3.91	.29	18.48	3.84	.05	18.45	4.12	.46	18.13	4.11		18.43	3.97
End.	11.95	5.04	-.85	12.63	4.79	-1.20**	13.58	4.96	1.21**	12.54	5.26		12.67	5.01
Het.	10.56	5.21	1.53**	9.33	4.67	-.75	9.95	5.39	-.23	10.15	4.80		10.00	5.02
Agg.	13.14	3.59	1.69**	12.10	3.98	.45	11.82	3.66	.46	11.51	4.28		12.14	3.91

* p=0.05

** p=0.1

표-V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학년을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욕구변인은 n Intraception, n Nurturance, n Chanpe, n Abasement이며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것은 n Heterosexuality, n Aggression, n Endurance로 1, 2, 3, 4학년이 거의 비슷한 순위를 결정짓고 있다. 이 결과에서는 Madigan²¹에 의해서 간호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욕구로 지적된 바 있는 n Order, n Deference, n Endurance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여주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는 한편, 여학생의 학업성적에 있어서 이과과제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욕구변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Heilbrun의 가설²²과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경험전에 이미 특수한 욕구구조를 갖게되며, 여성적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Levitt의 2인²³의 가설이 일치된다

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각 학년사이의 욕구구조상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몇가지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1학년과 2학년간의 비교에서는 n Order, n Exhibition, n Succorance, n Nurturance, n Heterosexuality, n Aggression 등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다시말하면 2학년이 1학년보다 n Order, n Abasement, n Nurturance에서 높게, n Exhibition, n Succorance, n Heterosexuality, n Aggression에서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계획적이며, 봉사적이고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일을 도와주려는 욕구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같은 현상은 간호학의 이론 자체가 그와같은 욕구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며, 3, 4학년에서 n Intraception, n Exhibition을

21) M.E. Madigan, *Loc. cit.*

22) A.B. Heilbrun, *Op. cit.*, p. 266.

23) E.E. Levitt, & others, *Loc. cit.*

제외하고 별차이를 보이지 않음은 2학년때 이미 특수한 욕구구조가 형성되어 계속같은 영향을 준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결과는 간호학생의 욕구구조가 2학년에서 4학년을 지나는동안 변화된다는 Schultz의 가설²⁴을 일부분 뒷받침해 주고는 있지만 이 결과로는 간호대학생의 성격변인에 영향을 주는 확실한 동기요인이 무엇이라고 결단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 불만족별 비교 결과는 표-VI와 같다.

<표-VI> 전공과목에 대한 만족, 불만족 그룹별 비교

	만족구룹(N=21)		불만족구룹(N=31)		t-value
	Mn	SD	Mn	SD	
Ach.	15.71	4.00	14.90	4.20	0.70
Def.	13.86	3.71	13.03	4.09	0.74
Ord.	15.33	4.43	12.35	4.10	2.49*
Exh.	12.24	3.43	14.65	4.13	2.20*
Aut.	13.95	3.56	16.35	4.80	1.96**
Aff.	15.10	3.85	13.90	3.64	1.13
Int.	18.48	3.12	17.90	5.47	0.43
Suc.	13.67	4.07	13.42	3.91	0.22
Dom.	16.33	4.84	16.10	4.60	0.18
Aba.	19.24	4.45	16.32	4.90	2.18*
Nur.	21.05	4.36	18.29	4.68	2.14*
Chg.	16.48	2.96	19.39	4.59	2.56*
End.	13.29	4.41	11.84	4.69	1.12
Het.	7.95	3.83	10.16	5.65	1.56
Agg.	11.81	4.25	12.84	4.32	0.85

* p=0.05

** p=0.1

표-VI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두구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n Change, n Order, n Exhibition, n Abasement, n Nurturance, 그리고 n Autonomy이다. 즉, 만족구룹이 불만족 구룹보다 n Order, n Abasement, n Nurturance에 더 정하게, n Change, n Exhibition, n Autonomy에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확실히, 소극적이며 계획적이고 봉사적이며 변화나 과시를 싫어하는 성격이 간호학 학습환경에 있어서 가장 동기유발의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바람직한 학습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로서 간호학 학습활동과 성격변인이 관

계가 있다고 한 제 I 가설에 대하여는 성립됨을 시준해 주었다.

제 II 가설: 임상에서의 학습활동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욕구구조가 있다면, 임상실습 성적의 과, 지진별 욕구구조상에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임상실습 성적의 과·지진구룹의 욕구구조를 비교한 결과 다음 표-VII와 같다.

<표-VII> 임상실습성적의 과·지진별 비교

	과진구룹(N=44)		지진구룹(N=48)		t-value
	Mn	SD	Mn	SD	
Ach.	15.93	4.27	14.81	4.24	1.26
Def.	13.55	3.32	12.77	3.87	1.03
Ord.	13.55	3.88	14.52	4.41	1.12
Exh.	12.84	3.74	13.25	4.36	0.48
Aut.	15.25	4.08	15.54	4.22	0.34
Aff.	14.45	3.93	15.96	3.94	1.83**
Int.	19.16	3.35	17.56	3.92	2.09*
Suc.	13.84	4.15	13.96	4.54	0.13
Dom.	15.66	3.96	15.06	4.60	0.66
Aba.	17.07	4.05	15.33	5.06	1.80**
Nur.	19.50	3.85	18.88	4.72	0.69
Chg.	18.50	3.43	17.75	4.27	0.92
End.	12.68	4.66	12.94	5.40	0.24
Het.	9.91	4.32	10.54	5.94	0.58
Agg.	11.41	4.14	11.81	4.30	0.46

* p=0.05

** p=0.1

표-VII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n Intraception, n Affiliation, n Abasement에서 두구룹사이에 유의있는 차이를 발견했고, 다음으로 n Achievement, n Order, n Deference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즉 과진구룹이 지진구룹보다 n Intraception, n Abasement, n Achievement, n Deference등에서 강하게, n Affiliation, n Order, 등에서 약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조용히 책임을 다하고 대인관계에서 신중하고 규율을 지키는 태도가 임상학습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겠고 지나친 친절감이나 소심함은 오히려 임상학습에서는 방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에 관해서는 Lentz의 1인²⁵도 임상실습에서 우수한 학생과 보통학생을 비교해 보았는데 만족한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는 약간 상반된 양상

24) E.D. Schultz, *Op. cit.*, p. 264.

25) E.M. Lentz & others, "Personality Contrast among Medical and Surgical Nurses," *Nur. Res.*, 14: 43-48, 1965.

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임상지도자들의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또 한가지는 본 연구에서는 과진구름과 지진구름의 구별이 현저하게 차이났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보통 구름에 지진학생을 포함시켰으므로 구별이 뚜렷하지 못한 점이다. 그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본연구의 결과가 훨씬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의 학습활동이 요구하

는 욕구변인은 n Intraception, n Abasement, n Achievement, n Deference 등임을 본 연구결과에서 시준해 주었다.

제Ⅱ 가설 : 임상과목별 학습활동이 다른 욕구구조를 요구한다면 학생들의 흥미과목별 욕구구조상에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전공분야에 있어서의 흥미과목별 욕구구조의 비교를 하는 다음 표-VIII과 같다.

<표-VIII>

각 흥미과목의 욕구변인별 평균

	내외과간호학 (N=26)	산부인과간호학 (N=30)	소아과간호학 (N=12)	정신과간호학 (N=52)	보건의간호학 (N=12)	전체 평균
Ach.	14.85	16.07	12.75*	16.06	17.50	15.44
Def.	14.04	12.83	13.00	12.98	13.08	13.19
Ord.	13.73	15.57*	14.08	13.77	13.00	14.03
Exh.	13.35	13.23	12.00*	13.13	13.00	12.94
Aut.	15.81	15.27	14.33*	15.15	16.83*	15.48
Aff.	15.15	14.83	16.50*	14.94	12.67*	14.82
Int.	18.31	18.03	18.83	18.81	20.08*	18.81
Suc.	14.73	13.73	14.75*	12.94	11.83*	13.60
Dom.	14.46	16.67	13.33*	15.87	17.50*	15.57
Aba.	16.81	16.17	18.50*	16.04	16.50	16.80
Nar.	19.65	18.43	17.92	18.98	18.75	18.75
Chg.	19.31*	16.93*	18.42	18.35	18.17	18.23
End.	11.27*	13.37	12.33	14.40*	13.92	13.07
Het.	9.85	11.10	12.08*	9.38	9.50	10.38
Agg.	10.85	11.30	13.58*	11.98	11.00	11.74

표-VIII에서 우선 각과목별로 전체평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보면 내외과 간호학에서는 n Change에 높고 n Endurance에 낮게, 산부인과 간호학에서는 n Order에 높고, n Change에 낮게, 소아과 간호학에서는 n Affiliation, n Succorance, n Abasement, n Heterosexuality, n Aggression에서 높고, n Achievement, n Exhibition, n Autonomy, n Dominance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정신과 간호학에서 n Endurance에 높게 나타났고, 보건의간호학에서는 n Achievement, n Autonomy, n Intraception, n Dominance에서 높고, n Affiliation, n Succorance에서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뚜렷하게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과목은 소아과 간호학과 보건의간호학으로, 두과목이 정반대의 욕구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그외의 과목에서는 별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하면 소아과 간호학을 택한 학생들은 친애적이고 소극적이며 자주성이 약하고 도

움 받기를 원하며 열등의식이 강하고 공격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비해서 보건의간호학을 택한 학생들은 성취욕이 강하고 지배적이며 자주성이 강한 반면 친애감이 약하게 나타났으므로 비교적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향에서라고 생각된다. 즉 소아과 간호학은 어린이아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환자를 다룰때와 같은 긴장이나 열등감등을 느끼지 않게되며 친애적으로 대인관계를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보건의간호학은 간호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비교적 활동적이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볼때 보건의간호학의 욕구구조를 연구한 George의 1인의 연구²⁶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마이 성립됨을 볼 수 있다.

26) J.A. George & M.D. Stephens, Loc. cit.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알수 있는것은 학생들이 중요시하고 있는것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영향에 의한 동기이며, 이것이 적절한 동기유발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Komorita 는 “간호학생들은 같은 연령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너무 빨리 환자들의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게 된다.”²⁷라고 주장했고, 최의 조사연구²⁸에서도 간호 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실습에 관련된 대인관계」가 가장 많은 반응을 보여 주었다. 또한 본 연구자의 3인의 조사²⁹에서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임상실습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주 원인은 대인관계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동기학습이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각 임상과목별로 흥미를 일으키는 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에 의한 동기이며 각 과목별로도 특징적인 욕구구조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에서 이 루어진 가설의 검증결과를 근거로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1) 일반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욕구는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여성적인 욕구로 심리적 욕구진단 검사에 측정하고 있는 15개의 욕구변인중에서 n Intraception, n Nurturance, n Change, n Abasement에 높은 점수를, n Heterosexuality, n Aggression, n Endurance에 낮은 점수를 보인다.

2) 간호학 학습활동이 성격변인에 영향을 주며, 임상실습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인 2학년때에 가장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관계되는 욕구는 n Order, n Exhibition, n Succorance, n Nurturance, n Aggression 이다.

3) 간호학 학습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욕구변인은 n Order, n Abasement, n Nurturance 이다.

4) 일반적으로 간호학 임상실습 환경에서 요구되는

욕구변인은 n Intraception, n Abasement, n Achievement, n Deference이며, n Affiliation 과 n Order는 방해되는 욕구변인으로 나타났다.

5) 간호대학생에 있어서 각 임상과목별로 흥미를 일으키는 요인은 원만한 대인관계에 의한 동기이며 각 과목별로 특징적인 욕구구조를 요구하는데, 특히 소아과 간호학과 보건 간호학은 서로 상반된 욕구구조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을 이해하고 평가, 지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적요인 뿐만아니라, 비지적 인성변인도 필히 고려되어 져야하며, 특히 임상 학습에 있어서는 각과목별로 다르게 고려되어 져야함을 시준해 주었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증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한다.

1) 대학 전공학과와 선택시기인 고등학교에서 욕구와 동기를 포함하는 성격검사를 실시하여, 간호학에 관계있는 욕구에 동기유발이 잘된 학생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대학 간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2)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임상학습에의 대인관계 문제가 가장 현저하게 대두 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첫째는, 각 학생의 욕구와 동기를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지도를 하는것과 둘째는 그와같은 점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본 연구의 결과는 단면적으로 간호대학생을 이해하는데, 그쳤으므로, 이 결과를 기초로하여, 더욱 신뢰도높은 가설의 검증을 위한 종단면적연구(Longitudinal Study)를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각 욕구변인별로 비교하는데 그쳤는데, 그 욕구의 원인을 구명하는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오천석 외 : 학습지도,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1.

27) N. Komorita, "Students Opinions toward Methods of Guidance and Evaluation in Clinical Nursing," *Nur. Res.*, 14 : 163-167, 1965.

28) 최익도 : "한국 대간 학교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한 일기초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66.

29) 상담과 생활지도에 관한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학생 공동조사, 1971, 10월)

- 이남표, 김옥환 : 교육심리학, 현선출판사, 1966.
- 정범모 : 교육과정, 중앙교육출판사, 1961.
- 황정규 : 교육평가, 교육출판사, 1967.
- Brown, A.F.: Curriculum Development, Phil.: W.B. Saunders Co., 1960.
- Bullough, B.: Issues in Nursing, New York: Springer Pub. Co., 1936.
- Heidgerken, L.: Teaching and Learning in Schools of Nursing, Phil: J.B. Lippincott, 1935.
- Murray, H.: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38.
- Madigan, M.E.: Psychology, Saint Louis: Mosby Co., 1966.
- [논문 및 정기 간행물]
- 김옥환 : 학업성적 예측에 관한 일 연구, 교육학연구, 제 3권(서울: 연세대학교, 1962) pp. 148-173.
- 박영수 : 과진아와 지진아의 욕구구조에 관한 연구, 비 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65.
- 이은옥, 우육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과학과 학생들의 입학전 제특성 및 태도와 입학후 갖게되는 전문간호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 제10권 1호, 1971, pp 25-37.
- 전산초 : 간호교육 원리 및 교육방법, 대한간호, 55 : 35-26, 1971.
- 최익도 : 한국대학 간호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한 일 기초연구, 비 간행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66.
- 하영수 : 4년제 간호대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47 : 28-68, 1971.
- 홍신영, 이영복, 이귀향 : 한국간호교육 개선을 위한일 조사연구, 1968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보고서, 1969.
- Casella, C.: Need hierarchies among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Nur. Res., 17 : 273-274, 1968.
- Cohen, S.J., Trehub, A. & Morrison, F.G.: Edwards Personal Preference Profiles of psychiatric nurses, Nur. Res., 14 : 318-321, 1965.
- Gebhart, G.G., & others: Personality needs for under and over achieving freshman, J. of Applied Psy., 42 : 125-128, 1958.
- George, J.A., Stephens, M.D., Personality traits of public health nurses and psychiatric nurses, Nur. Res., 17 : 168-170, 1968.
- Heilbrun, A.B.: Configural interpretation of E.P.P.S. and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 Guid. J., XLII, 1963, pp 264-268.
- Holland, J.I.: The prediction of college grades from personality and aptitude variables, J. of Applied Psy., 51 : 245-254, 1960.
- Johannsen, W.J. & others: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nges during psychiatric nursing affiliation, Nur. Res., 13 : 342, 1964.
- Kingsley, Marian: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lection of nursing as a career, Yonsei Nursing Journal, 1 : 131-141, 1966.
- Kole, D.M. & others: Intellectual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medical students, (Abstract) J. Med. Educ., 38 : 138-139, 1963.
- Lentz, E.M., Michaels, R.G.: Personality contrast among medical and surgical nurses, Nur. Res., 14 : 43-48, 1965.
- Levitt, E.E., Lubin, D. & Zuckerman, M.: The student nurse, the college woman, and the graduate nurse; a comparative study, Nur. Res., 11 : 80-82, 1962.
- Lum, M.K.: A comparison of under and over-achieving female college students, J. of Ed. Psy., 51 : 109-113, 1960.
- Redman, B.K.: Nursing teacher perceptiveness of student attitudes, Nur. Res., 17 : 59-61, 1968.
- Ryan, J.J., Factors that condition learning, Ed. Psy., New York: Barnes & Noble, 1963.
- Schultz, E.D.: Personality traits of nursing students and faculty concepts of desirable traits, Nur. Res., 14 : 261-268, 1965.
- Smith, G.M., Role of personality in nursing education, Nur. Res., 14 : 54-63, 1965.
- Stein, R.F.: The student nurse; A study of needs, roles, & conflicts, Nur. Res., 18 : 308-315, 1969.
- Struffacher, L.C., & Navran, L.: The prediction of subsequent professional activity of nursing students by the E.P.P.S., Nur. Res., 17 : 256-260, 1968.

=Abstract=

A STUDY IF PERSONALITY STRUCTURE AND HIERARCHY OF NEEDS IN COLLEGIATE NURSING STUDENTS

KYE YOUNG CHOI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Shin Young Hong Professor)

Presently, the performance level of the college student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attention, particularly in the area of professional education. The problem of underachievement, especially in areas dealing with science and technology, has gone through considerable investigation by neumorous Psychologists and Educators. Thus for, however,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in determining conclusively the non-intellectual factors involved.

The maladjustment problem of these students has been a thorn in the side of nursing education for some time. This topic has been discussed among nursing educators without any tangible results.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ntmbcr of students who withdraw from nursing education programs before graduation has increased. This represents a major problem for nursing education.

This problem area had increased attention drawn to it on October 1957, when Russia successfully launched to first satellite "Sputnik" into space. Various studies seem to indicate that factors related to over-achievement and under-achievement can be found in the motivation of the students.

This study is aimed at testing 3 hypotheses which hopefully will lead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earn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and to determine some of their nonintellectual personality traits.

Hypothesis I : If learning activities in nursing students and personality are correlated,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need structures between 4 classes of nursing collegiate students.

Sub-hypothesis: There will also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student satisfaction in her major subject.

Hypothesis II : If there is a special personality need structure which is required for the clinical learning activity in general, then there will b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ersonality need structures of under-achievers and overachievers.

Hypothesis III : If each clinical nursing subject requires different personality need structures, then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personality need structure between the different clinical groups

Methodology:

1. Tool: A Korean translation and correction of the 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of U.S.A. was used.
2. Subject and Test Method: Subjects were nursing students at Yonsei University, who enrolled

for Fall semester of 1971. The Researcher herself executed the test for the test for the class as a group, and the absent students were tested individually. Out of 307 students, 293 students (95.4%) were reported.

3. Statistical treatmen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of the 15 personality need variables were computed and the value of T-test was obtain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the personality need structures between each group.

Results:

1. For the first hypothesis, the personality need structures between each of the 4 classes and the reported degree of satisfaction in major subjec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the hypothesis I was accepted.
2. The comparison of personality need structure of under-achievers and over-achievers in clinical fiel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us hypothesis II was accepted.
3. Personality need structure between clinical subject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fore the 3rd hypothesis was accepted.